

화우테크, LED조명으로 CDM 진출

조명 1만6500개 교체해 전력비용 10억원 절감 ... CO₂ 5000톤 감축

화우테크놀러지는 송파구의 공공 조명을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해 CDM(청정개발체제) 등록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LED조명 전문기업 화우테크놀러지는 LED조명의 대형 수요처를 확보함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CDM 사업에도 뛰어들게 됐다.

화우테크놀러지는 1만6500여개에 달하는 송파구 관내 공공조명을 저전력 LED로 교체함으로써 연간 소비전력비용을 10억원 가량 절감하고 탄소배출량을 4859톤 감축해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탄소배출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LED조명 교체 및 CDM은 조명 교체 후 발생하는 절감 비용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화우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이후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화우테크의 LED조명 기술과 CDM 사업 노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0>